

참원결 1 경주

황무현이 4연승에 도전한다!

1 김주석 2 박태한 3 황무현 4 이성광 5 장찬재 6 이흥주 7 김지식

17주만에 출전해 3연승 성공시키며 한수위 기량을 증명 한 3번 황무현이 내친김에 4연승 도전한다. 3번이 김해림 선배인 4번 이성광의 지원사격을 받아도 되지만 6번 이흥주라는 힘 좋은 선수가 있어 특유의 노련미 앞세워 우승사냥 나서겠다. 출서는 과정에서 까칠한 1번 김주석과 7번 김지식 중 한명을 붙이겠는데, 순조롭다면 3-1,7,6차권으로 끝나겠다. 하지만 1번이 7, 6번을 규합해 3번의 타이밍을 빼앗는다면 자칫 3번의 입상이 좌절될 수 있는 만큼 1-7,6차권은 받쳐들만 하겠다.

추천 : 3-1,7

노림 : 3-6/1-7,6

참원결 3 경주

파업 vs 비파업

1 박병하 2 김태한 3 공민우 4 박성현 5 정윤재 6 이기호 7 윤현구

기량은 1번 박병하가 가장 앞서고 있지만 최근 흐름상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1번이 3일 동안 타종선행으로 강한 인상 심어주었는데, 시속도 괜찮아 금일 역시 흐름 주도하겠다. 이왕이면 같은 파업 세력들인 2번 김태한, 3번 공민우 중 한명을 챙겨줄거라 1-2,3차권에 믿음 가는데, 5번 정윤재를 시작으로 7번 윤현구가 뒤따르는 비파업 세력들의 거센 반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만큼 7번을 축으로 후미 공략할 4번 박성현, 6번 이기호를 묶는 7-4,6차권은 염두에 뒀다.

추천 : 1-2,3

받침 : 7-4,6

광명선발 1 경주

임규태의 몸상태가 좋지 않다!

1 민상호 2 김성호 3 강성배 4 함명주 5 이우정 6 임규태 7 유현근

금주 무기력한 경기로 팬들을 실망시킨 6번 임규태가 금일도 인정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단 인정 받더라도 마크 2착 정도가 최선이라 판단되는데, 마지막날에 승부하는 7번 유현근과 기본기 탄탄한 1번 민상호, 3일 연속 3착하며 가능성 보여준 3번 강성배가 도전장 내밀겠다. 7번이 6, 1번 사이에 자리 잡고 역전기회 잡아낸다면 승산 있어 보여 7-6,1차권에 비중 둘만 하겠는데, 1번이 서두를 2번 김성호를 몰고간다면 깜짝 우승 가능하고 1번과 연대되는 5번 이우정도 틈새 파고들거라 7-3, 1-6,5차권은 받쳐두자.

추천 : 7-6,1

노림 : 7-3/1-6,5

광명선발 3 경주

이한성이 무난한 편성을 만났다!

1 조영근 2 이한성 3 한은철 4 조창인 5 권우주 6 오기현 7 이일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작전 가능한 2번 이한성이 강자 빠진 월요경주라 우승후보로 활약할 수 있겠다. 2번이 무리한 주행을 피하고 경쟁상대인 6번 오기현과 타협점 찾겠는데, 두 선수 같은 파업세력으로 연대 가능해 붙어타기만 한다면 2-6차권으로 마무리 될 수 있겠다. 하지만 2번이 광주정보고 작속후배인 4번 조창인과 협공 펼치거나 서서히 예전 좋았던 감각 되찾고 있는 3번 한은철이 들이댄다면 6번은 잘해야 3착에 만족할 수 있는 만큼 2-4,3차권에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추천 : 2-6

받침 : 2-4,3

참원결 2 경주

곽현명의 추입과 김영수의 선행!

1 유경원 2 이성용 3 강성욱 4 강진원 5 곽현명 6 김영수 7 김형모

이번 경주는 인지도 앞선 5번 곽현명과 6번 김영수가 우승 다툼 벌이겠다. 전법상 6번이 앞장서서 때리고 5번은 최대한 활용한뒤 추입승 거두겠는데, 마지막날이라 무리하기 보다는 웬만하면 순리대로 풀어갈거라 5-6차권에 비중 둘만 하겠다. 하지만 6번이 딱히 활용할만한 선수 없고 금주 종속도 좋아보이지 않아 길게 갈 경우엔 3착까지 밀려날 수 있겠다. 따라서 시종일관 5마크 집중할 7번 김형모와 출발대 이점 살릴 1번 유경원, 2번 이성용을 연결하는 5-7,1,2차권은 배당면에서 노려볼만 하겠다.

추천 : 5-6,7

받침 : 5-1,2

참원결 4 경주

임채빈의 연승은 금일도 계속 된다!

1 임채빈 2 류재열 3 인치환 4 공태민 5 엄정일 6 박용범 7 조영환

과연 1번 임채빈의 연승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주 첫날을 제외하곤 보란듯이 타종선행 펼치며 여유승 거뒀는데, 금일 결승전에선 수성팀 동료인 2번 류재열을 챙겨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1-2차권에 비중 둘만 하겠다. 하지만 1번이 큰 경기에선 웬만하면 순리대로 풀어나고 있어 특정 두번째인 3번 인치환과 타협하거나 아님 호호 잘맞는 6번 박용범, 4번 공태민 중 한명을 붙여준다면 2번의 입상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1-3,6,4차권에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추천 : 1-2,3

받침 : 1-6,4

광명선발 2 경주

김흥건이 유리한 편성을 만났다!

1 이승주 2 정성오 3 김흥건 4 김만섭 5 김성우 6 채평주 7 허남

전일 김경환 마크를 놓치며 6착으로 마감했던 3번 김흥건이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이 악물고 우승사냥 나서겠다. 3번이 젓히기 승부 위력적인 4번 김만섭을 타깃으로 삼겠는데, 4번이 3일 동안 무기력한 경기로 일관해 금일은 5번 김성우의 탄력을 활용한뒤 젓히기로 입상 시도할거라 3-4차권을 응원해볼만 하겠다. 하지만 4번이 금일도 때릴 타이밍 놓친다면 내선 마크 노릴 6번 채평주와 3번의 중학교 선배인 1번 이승주, 5번의 도움 받을 2번 정성오에게 찬스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뒀다.

추천 : 3-4,6

받침 : 3-1,2

광명선발 4 경주

임병창의 몸상태가 최상이다!

1 임병창 2 박효진 3 이희석 4 서우승 5 최대용 6 이재봉 7 김광진

특점은 5번 최대용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3일 동안 이렇다할 활약 펼치지 못해 축으로 인정 받을지 미지수다. 반면 좋은 경기력 선보이며 눈도장 찍은 1번 임병창이 전일 젓히기 실패한 3번 이희석을 몰고간뒤 추입 반격 나선다면 5번을 따돌리고 우승 거머쥘 수 있어 1-5차권을 우선 권하고 싶다. 하지만 1, 5번이 파업, 비파업으로 대립각 세운다면 이들 후미 공략할 7번 김광진과 앞서 언급했던 3번, 그리고 5번의 도움 받을 6번 이재봉까지 볼러들일 수 있는 만큼 1-7,3차권과 5-7,6차권은 관심집중.

추천 : 1-5,7

노림 : 1-3/5-7,6

광명 5 경주

김경환의 컨디션이 최상이다!

1 노택훤 2 김재훈 3 서한글 4 김경환 5 김기동 6 김석호 7 김경태

최근 성적이 말해주듯 4번 김경환의 컨디션이 최상이다. 3일 동안 유일하게 연승 챙기며 눈도장 찍었는데, 금일 특별 승급 도전할 6번 김석호와 전일 져하기 위력적이었던 2번 김재훈을 의식해 이들과 타협한다면 4-6,2차권으로 끝나겠다. 문제는 비파업 세력들인 3번 서한글과 5번 김기동이 선두권 장악후 서로 반바퀴씩 끌어준다면 목직한 종속 유지하며 돌중 한명은 2착까지 버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대비해 4-3,5차권을 보험용으로 받쳐두는게 안전하겠다.

추천 : 4-6,2

받침 : 4-3,5

광명 7 경주

연대세력 다수 확보한 유선우!

1 김종력 2 유선우 3 최지운 4 장지웅 5 고요한 6 고종인 7 김학철

3일 동안 딱히 보여준게 없어 인정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 5번 고요한보다 연대세력 다수 확보한 2번 유선우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겠다. 2번이 5번과 타협한다면 후미에 두고 친분 있는 1번 김종력, 4번 장지웅의 지원사격 받으며 승부 거리 조율할거라 2-5,1,4차권에 비중 둘만 하겠다. 하지만 5번이 인정 받는다면 1, 4번을 규합한뒤 2번의 역전을 방어할 수 있는 만큼 5-1,4차권은 보험 들어놓는 차원에서 받쳐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추천 : 2-5,1

노림 : 2-4/5-1,4

광명 9 경주

유종의 미 거들 최순영!

1 최순영 2 노태경 3 문현진 4 손용호 5 공민규 6 송승현 7 박종태

3일 동안 단 한번도 입상권에 들어가지 못하며 자존심 구긴 1번 최순영이 금일은 유종의 미 거두기 위해 우승에 집중하겠다. 다행히 1번이 무난한 편성을 만나 승를 높겠는데, 같은 파업세력인 5번 공민규에게 후미 견제 맡기고 선행성향 강한 7번 박종태를 앞세워 활용한다면 충분히 승산 있겠다. 따라서 1-5,7차권에 승부수 띄워볼만 하겠는데, 1번이 13기 동기생인 2번 노태경을 붙여주거나 아님 과거 고양팀 출신 4번 손용호와 연대를 형성한다면 후착 가능한 만큼 1-2,4차권은 눈여겨볼만 하겠다.

추천 : 1-5,7

받침 : 1-2,4

광명 11 경주

김지광이 이름값 톡톡히 해내겠다!

1 임대승 2 허남열 3 김지광 4 곽훈신 5 문승기 6 이기한 7 이인우

금, 토 경주 부진을 일요일에 2착하며 어느 정도 만회한 3번 김지광이 금일은 강자 빠진 마지막 날이라 우승까지 도전하겠다. 3번이 득점 높은 이점 살려 힘 좋은 7번 이인우 뒷자리 확보한뒤 추입승부 펼치겠는데, 7번이 3번의 뜻에 따라 움직여준다면 3-7차권으로 끝나겠다. 하지만 7번이 무리한 긴거리 승부로 인해 종속 꺼진다면 승급후 좋은 활약 펼치고 있는 1번 임대승과 내선 마크력 뛰어난 5번 문승기, 찬스 강한 6번 이기한에게 기회 주어질 수 있겠다.

추천 : 3-7,1

받침 : 3-5,6

광명 6 경주

이진원 vs 안효운

1 김명래 2 박종현 3 이진원 4 이주현 5 오대환 6 박인찬 7 안효운

경륜은 득점을 무시할수 없다고 3번 이진원이 7번 안효운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데, 같은 비파업 세력이자 경기 중심선수인 2번 박종현이란 지원군까지 있어 승를 높다는 평가다. 3번이 줄서는 과정에서 7번을 붙이고 2번을 최대한 활용하는 작전이라면 우승 차지할 수 있어 3-7,2차권을 우선 권해드리고 싶은데, 3, 2번이 또 다른 연대세력인 1번 김명래를 규합해 7번을 견제한다면 7번은 이에 맞서 6번 박인찬, 4번 이주현과 손잡고 정면대결 택할 수 있는 만큼 3-1, 7-6,4차권은 염두에 뒀야겠다.

추천 : 3-7,2

노림 : 3-1/7-6,4

광명 8 경주

김성현 vs 송종훈

1 김성현 2 고병수 3 강병석 4 송종훈 5 공태욱 6 최원재 7 조영소

금요일 6착한걸 제외하곤 토, 일요일경주에서 2, 3착 하며 어느 정도 자존심 지킨 1번 김성현이 금일은 마지막 날이라 우승까지 욕심내겠다. 임채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4번 송종훈이 강력한 도전 상대로 나서겠는데, 1번이 4번을 의식해 앞, 뒤로 붙여탄다면 쌍승식이 문채일뿐 복승식 1-4차권으로 끝나겠다. 하지만 최근 흐름상 파업, 비파업으로 나뉘다면 이들 뒤에서 역전기회 모색할 2번 고병수와 3번 강병석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만큼 1-2,3차권과 4-2,3차권에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추천 : 1-4,2

노림 : 1-3/4-2,3

광명 10 경주

임진섭 인정? 비파업 반격?

1 임진섭 2 노형균 3 최병길 4 최성우 5 김지훈 6 김상근 7 임경수

완벽하진 않지만 특선급 출신답게 고른 성적 유지하고 있는 1번 임진섭이 3일 동안 2-3-2착 기록하며 아쉬움 남겼기에 금일은 우승까지 욕심내겠다. 비파업 세력으로 탄지 걸어올 수 있는 2번 노형균, 3번 최병길을 적절히 이용한뒤 추입력 발휘한다면 이들을 상대로 역전승 성공시킬거라 1-2,3차권에 믿음 간다. 하지만 2, 3번이 1번을 인정하지 않고 7번 임경수를 규합해 연대를 형성한다면 1번도 이에 맞서 4번 최성우와 손잡고 정면대결 택할 수 있는 만큼 1-4, 2-3,7차권은 관심가져볼만 하겠다.

추천 : 1-2,3

노림 : 1-4/2-3,7

광명 12 경주

윤현준 vs 김영섭

1 양기원 2 주현욱 3 김동훈 4 윤현준 5 이형민 6 김영섭 7 명경민

가파른 상승세 타고 있는 4번 윤현준과 자기관리 잘해 우수급 강자로 활약 중인 6번 김영섭이 지역 선, 후배 사이로 호흡 맞추겠다. 4번이 노련한 6번에게 후미 견제 맡기고 토요일에 활용했던 7번 명경민을 다시 한번 앞세우겠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이들을 인정해준다면 4-6,7차권으로 끝나겠다. 하지만 금주 좋은 경기력 선보이고 있는 1번 양기원이 파업세력을 대표해 탄지 걸어오거나 아님 4번이 직접 흐름 주도한다면 6번의 추입승도 기대해볼 수 있는 만큼 4-1, 6-7,1차권은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다.

추천 : 4-6,7

노림 : 4-1/6-7,1

광명선 13 경주

왕지현 vs 최동현

1 홍의철 2 최동현 3 왕지현 4 류재민 5 이성민 6 유다훈 7 이진웅

3일 동안 강자 틈새 4-3-3착으로 마감했던 3번 왕지현이 금일은 우승에 도전하겠는데, 다양한 작전 가능하고 금주 관창은 페달링 선보인 2번 최동현의 반격을 무시할 수 없어 이들 우승다툼이 치열하겠다. 서로의 기량을 인정한다면 2번의 선행과 3번의 추입이 어우러져 3-2차권으로 마무리 될 수 있겠지만 마지막 날에 승부욕 발휘하는 4번 류재민과 2번의 지원사격을 확실히 받을 5번 이성민이 들이댄다면 흐름 꼬일 수도 있는 만큼 3-4,5차권과 2-4,5차권은 소액정도 받쳐돌만 하겠다.

추천 : 3-2,4

노림 : 3-5/2-4,5

광명선 15 경주

김민배 vs 김형완

1 박준성 2 김원정 3 김동관 4 문인재 5 김민배 6 김형완 7 배민구

선행시속 업그레이드된 5번 김민배가 세종팀 선배인 1번 박준성의 도움 받아 승부 거리 좁힐 수 있다면 뒤에서 추입 노릴 6번 김형완을 잠재울 수 있겠다. 5번이 의도한대로 6번이 차분하게 따라와준다면 5-6차권으로 마무리 될 수 있겠지만 줄서는 과정보다 각자 우승을 위해 눈치싸움 치열하게 전개된다면 한명은 3착 내지 착외하면서 기량 회복세인 7번 배민구와 노련한 2번 김원정에게 찬스 돌아갈 수 있겠다. 따라서 5-7,1차권과 6-7,2차권은 소액정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다.

추천 : 5-6,7

노림 : 5-1/6-7,2

부산 선발 4 경주

김용남의 우세가 점쳐진다!

1 강철호 2 김용남 3 김영규 4 용석길 5 김경록 6 송영진 7 정주상

득점 높은 2번 김용남이 3일 동안 강자 틈새 아쉬움 남겼던 만큼 금일은 이 악물고 우승에 도전하겠다. 최근 자력승부 위주로 풀어가면서 인지도 쌓고 있는 7번 정주상이 같은 비파업 세력인 2번 앞에서 흐름 주도하겠고 2번은 또 다른 친분세력인 3번 김영규에게 후미 견제 맡기겠다. 나머지 선수들의 견제를 피해 협공 펼친다면 2-3,7차권으로 마무리 될 수 있겠지만 마지막 날에 승부욕 보이는 5번 김경록과 6번 송영진이 틈새 파고든다면 후착 가능한 만큼 2-5,6차권은 살짝 염두에 뒤야겠다.

추천 : 2-3,7

받침 : 2-5,6

부산 선발 6 경주

정 승 vs 고재성

1 정 승 2 강형목 3 고재성 4 이은우 5 김창수 6 신우삼 7 박태호

전일 젓하기 시속 상당히 좋았던 1번 정 승과 7번 박태호라는 아군세력을 안고 있는 3번 고재성이 결승전 우승후보로 나서겠다. 서로 좋은게 좋은거라고 붙어타며 순리운영 택한다면 나란히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어 1-3차권에 믿음 간다. 하지만 친분 있는 6번 신우삼과 힘 합칠 수 있는 4번 이은우가 최상의 컨디션 보여주고 있어 욕심 부린다면 후착 가능하겠고 홀로 싸워야 하지만 힘에서 뒤지지 않는 2번 강형목이 들이댄다면 1, 3번의 동반입상이 무산될 수 있는 만큼 1-4,2차권과 3-4,2차권은 관심집중.

추천 : 1-3,4

노림 : 1-2/3-4,2

광명선 14 경주

조주현 vs 최종근

1 최종근 2 조주현 3 윤진규 4 박일호 5 손재우 6 박진철 7 김태범

선행, 젓하기 승부 위력적인 2번 조주현이 같은 총청권이자 금주 자력승부로 좋은 활약 펼쳤던 1번 최종근을 견제하기 위해 후미에 묶어두겠다. 2번이 타종선행 나설 5번 손재우의 탄력을 이용해 젓하기 타이밍만 완벽하게 잡아낸다면 1번의 역전을 방어할 수 있을거라 2-1차권을 우선 권하고 싶은데, 금요경주 우승한 여세 이어갈 7번 김태범이 이들 뒤에서 거칠게 압박하거나 싸움닭 4번 박일호가 내선 장악후 흐름 꼬이게 만든다면 2, 1번의 동반입상이 무산될 수 있는 만큼 2-7,4차권과 1-7,4차권은 관심집중.

추천 : 2-1,7

노림 : 2-4/1-7,4

광명선 16 경주

다들 정종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1 정하늘 2 김원진 3 정종진 4 양승원 5 정해민 6 정정교 7 전원규

결승전이고 기량 우수한 동서울팀 5번 정해민, 1번 정하늘, 7번 전원규가 포진되어 있지만 3번 정종진을 인정해주는 분위기라 3번이 움직이면 다들 앞자리 내주며 환영한다. 어떨게든 3번과 어울려 동반입상 노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데, 3번이 직전 회차 결승처럼 4번 양승원과 타협한다면 3-4차권으로 재탕 성공하겠다. 하지만 동서울팀이 힘을 합쳐 따지 걸어온다면 이들 중 한명은 2착 진입 가능한 만큼 3-5,7,1차권은 보험용으로 관심가져볼만 하겠다.

추천 : 3-4,5

노림 : 3-7,1

부산 선발 5 경주

구상신의 기세가 살아나고 있다!

1 구상신 2 김명중 3 이근우 4 우종길 5 최유선 6 구광규 7 정성기

서서히 옛 기량 회복하고 있는 1번 구상신이 3일 동안 2-1-2착 기록하며 강한 인상 심어주었다. 금일은 무난한 상대 만나 우승까지 욕심내겠는데, 같은 의창팀 소속인 4번 우종길을 붙이고 전일처럼 한바퀴 선행 승부 장착한다면 동반입상 가능해 보여 1-4차권을 응원해볼만 하겠다. 하지만 최근 페달링 무거운 4번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기량 무시할 수 없는 6번 구광규, 선행 자신감 얻은 5번 최유선, 홀그라운드 이점 살릴 2번 김명중에게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1-6,5,2차권은 필히 받쳐두자.

추천 : 1-4,6

받침 : 1-5,2

인터넷 무료 예상지
SPEEDon1.co.kr

문의전화 : 010-8181-8575